



**Bayer사, 비스페놀-A 100천톤 건설 계획**  
98년 내 공사 착수, 2000년 완공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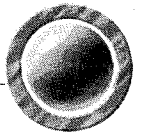
Bayer사는 현재, 태국 Map Ta Phut에서 추진 중인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플랜트 건설과 병행해서 제2단계로 폴리카보네이트 플랜트 및 비스페놀-A 플랜트 건설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Bayer사는 1단계로 폴리카보네이트 연산 50천톤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99년 하반기에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며 2단계로 추진할 폴리카보네이트 50천톤 설비와 비스페놀-A 100천톤 설비는 98년 안에 공사 착수, 2000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Bayer사는 2000년까지 이 사이트에서 기존의 ABS수지와 SAN수지에 이어 폴리카보네이트수지 연산 십만천톤, 비스페놀-A 십만천톤 설비를 가지게 되어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엔지니어링플라스틱 메이커로써 지위를 확립하게 된다.

**일본, PVA시장 혼탁**  
PVA 덤프방지관세 부과 불구, 저가 책정 지속

일본산 PVA가 덤프방지관세를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 공급·판매함에 따라 국내 공급업체에게 적지않



은 피해를 입히는 등 상호 마찰의 불씨를 제공,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PVA 가격을 놓고 그동안 수급업체 간 갈등상황이 한·일 양국 공급자간 대립으로 변조되는 등 국산과 외산의 시장점유율 싸움은 쉽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산 PVA 가격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쿠라데이 27%, 니폰콘세, 덴카, 신네트, 유니티카사 제품이 각각 37.75%이며 기타 일본산 PVA 공급자는 35.48%로 부과 결정돼 시행되고 일본산 PVA 최종관세는 본 판정에 8% 기본관세를 더한 35~45.75%이며 지난 4월 10일부터 소급, 오는 2003년 4월9일까지 향후 5년간 부과되고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최근 쿠라데이의 경우 27%, 유니티카 37.75%의 관세를 적용해도 국산 공급가보다 각각 톤당 10만원에서 20~30만원 싸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덤핑방기관세 부과 전 8% 기본관세 적용시 이들 제품은 대부분 kg당 1.60~1.70달러로 수입됐으나 최근 27~37.75% 덤핑방기관세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kg당 1.30달러선에 공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산 PVA는 '저가물량 공세로 국산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려 한다', '국산 PVA시장을 진흙탕물로 만들고 있다'는 식의 비난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내수가격은 톤당 2.25~2.30달러로 수출가와 상당한 차를 보이고 있다.

공급업체들의 무분별한 덤핑과 가격하락으로 일본산 PVA 국내시장점유율은 덤핑방기관세 부과 후 5~10%까지 떨어졌던 것이 최근 들어 20%선까지 회복되는 등 덤핑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HMT Polystyrene사 PS 생산 시작  
사업생산 6만톤 신설비 완공**

태국의 HMT Polystyrene사는 Map Ta Phut에 건설해 온 PS 연산 6만톤 신설비를 지난 5월에 완공, 시운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생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HMT Polystyrene사의 PS 총 생산 능력은 기존의 PS 3만톤 설비와 합쳐 9만톤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태국 내의 PS 내수는 2십만톤이지만, 공급능력은 동시를 포함해 5개사가 약 4십만톤에 달해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에 따라 HMT Polystyrene사는 그레이드 삭감을 통해 코스트다운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한 내수판매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중국, 홍콩시장에 적극 진출, 증설한 6만톤 물량을 수출할 계획이다.

HMT Polystyrene사는 삼릉화학과 TOA 그룹이 67:33 출자비율의 합작회사이며 현재 태국의 PS 총생산능력은 연산 43만1천톤 규모이다.

**대만 FPG, 에틸렌 공장 가동 연기  
4만5천톤 규모, 98년말 내지 99년 초로**

CPC(Chinese Petroleum Corp.)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트리블과 유도품 메이커들의 안정된 공급 요구에 따라 그동안 휴지하고 있던 NO.2 납사 크래커를 재가동할 계획이지만 현지 주민과 맺은 환경협정의 조정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실현여부를 알 수 없다.

한편, 대만의 유도품 생산능력 대비 에틸렌 공



급가능량은 97년 기준 약 40%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지난 7월초 NO.5 납사 크랙커가 트러블 발생으로 가동 중단(7월말 가동), 8월 3일에는 NO.3 납사 크랙커 보수작업 중 가스폭발사고 발생으로 가동중단(재가동 미정)됨에 따라 원료 공급이 타이트한 상태이다. 또한 FPG (Formosa Plastic Group)가 건설한 제1기 에틸렌 45만톤 공장이 7월 가동예정이었으나, 공사진연과 시황의 악화로 98년말~내년 초로 연기됨에 따라 대만의 기초유분 수급은 당분간 타이트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Eastern Polymer사 해산**  
경쟁력 열세·루피아 하락, 국내 수요 격감

인도네시아의 PVC 합작회사인 Eastern Polymer사는 최근 해산을 결정, 종업원 약 200명을 전원 해고하고 현재 청산작업에 착수했다.

플랜트 생산능력이 적어 경쟁력에 열세가 있고 루피아 하락에 의한 국내 수요의 격감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결정을 내려졌다.

Eastern Polymer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석유화학공업의 개척자로서 1972년 삼릉상사, Tokuyama, 현지기업이 출자해 Jakarta 교외에 플랜트를 건설, 사업을 시작했다.

생산능력은 당초 연산 4만톤이었지만, 그후 4만8천톤까지 확대했다.

그런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석유화학분 중에서 PVC 수지에의 투자가 확대, Asahimas Subentra Chemical이 debottlenecking을 통해 2십4만5천톤 체제를 확립하였고, Statomer사

가 97년에 15만톤 체제로 증설하였다. 이렇게 대형 플랜트의 잇따른 부상과 루피아 하락 등으로 국내 수요는 대폭 하락하고 있어 소규모 설비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유화학프로젝트 연기 전망**  
경제위기 원인, 주주구성 변경 확실

인도네시아가 계획 중인 2개의 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는 경제위기로 대폭 늦어질 전망이며 주주구성의 변경이 확실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석유화학수요는 97년 기준으로 60만톤을 넘었는데 지금까지 그 성장 페이스를 지속한다면 연간 1백만톤 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그러나 동남 아시아 경제위기에 이어 5월에 폭동, 정권교체 등의 쇼크로 루피아가가 대폭 하락함에 따라 국내 수요는 석유화학 전체로 60% 이상 축소됐다. 이러한 석유화학 수요의 격변 가운데 Chandra Asri에 이어 2대 프로젝트로써 주목되고 있는 TPPI와 P.T.PENI의 계획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동 Java Tuban에 에틸렌 연산 70만톤을 건설 중인 TPPI 계획은 파이낸스가 확정되기 전, 자본금에 의해 공사에 착공, 전체 공정의 40%까지 건설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것은 파이낸스가 확정되기 직전 루피아 하락이 본격화되고, 동프로젝트의 최대출자자인 Tirtamas Majutama의 자금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앞선 방향족은 70% 이상 공정을 보인 가운데 97년말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 ☐